

우수상

기사로 송고하지 못한 80일, 그 300km의 비극을 건너온 기적의 무게



영남일보

강승규 기자



심야의 불청객, 잔인한 특종 냄새

2026년 1월29일의 밤은 유난히도 시리고 정적이었다. 동토(凍土)의 한복판에 선 듯 가로등 불빛마저 얼어붙은 그 평온을 깨뜨린 것은 데스크 지시가 아닌, 익명을 요구한 한 의료진의 떨리는 목소리였다. “기자님, 지금 수도권에서 갈 곳을 잃은 고위험 산모가 대구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걸 정말 아닙니다. 제발 세상에 알려주세요”.

수도권 거대 병원들이 손을 놓아버린 28주 차 산모가 300km 거리의 대구로 이송 중이라는 소식. 찰나의 순간, 내 안의 기자 본능은 비릿한 아드레날린을 뿜어냈다. ‘수도권 의료 인프라의 파열음’, ‘응급실 뽕뽕이를 넘어선 광역 이송의 비극’. 머릿속에는 이미 자극적인 수식어들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고, 내 손가락은 자판위를 탐욕스럽게 달리고 있었다. 누군가의 처절한 고발은 내게 잔인하게도 완벽한

‘특종’의 소재로 치환 됐다.

나는 즉시 취재 그물을 던졌다. 하지만 구급차 안의 산모와 가족에게는 차마 연락할 수 없었다. 사선을 넘나드는 이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은 기자의 소명이 아니라 폭력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대신 나는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병원 관계자들의 입을 열고, 구급차의 이동 경로를 촘촘히 복기하며 팩트의 파편을 수집했다. 수도권 대형병원들이 내뿜은 “당일 분만 불가”라는 무책임한 선고들을 수집할 때마다, 나는 이것이 우리 사회의 치부를 드러낼 거대한 성취가 될 것임을 확신했다. 타인의 처절한 불행이 나의 커리어에는 찬란한 기회가 되는, 기자의 지독하고도 비겁한 역설이었다.

보도할 수 없었던 죽음, 수첩에 갇힌 진실

이튿날 새벽, 대구 한 대학병원 응급실



대구가톨릭대병원 전경. 대구가톨릭대병원 제공

의 차가운 복도에서 나는 비보를 접했다. 쌍둥이 중 한 명의 심장이 멈췄다는 소식이었다. 1.2kg의 작은 생명이 빛을 보기도 전에 사라졌다는 사실을 마주했을 때, 내 취재수첩의 첫 문장은 ‘미숙아 사망’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 문장을 끝내 기사로 송고하지 못했다.

이 사건을 아는 이는 없었다. 나를 제외한 어느 매체도 이 고독한 비극을 주목하지 않았고, 세상은 평소처럼 무심하게 흘러갔다. 단순히 비극을 전하는 것이 두려워서 보도를 포기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팩트라는 차가운 메스로 부모의 갖췄겨 나간 심장을 다시 후벼 파는 일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기사는 마땅히 냉정해야 한다고 배웠지만, 그 밤 산모가 겪었을 형언할 수 없는 공포와 남편의 망연자실한 절망 앞에 내 펜 끝은 한없이 무거웠다.

보도되지 않은 그 죽음은 80일 동안 내 가슴 한구석에 무거운 돌덩이처럼 얹혀 있었다. ‘단독’이라는 화려한 꼬리표를 달고 세상에 내보낼 수도 있었지만, 나는 그들의 슬픔을 팔아 기사를 완성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세상은 이 거대한 비극을 모른 채 지나갔지만, 나는 홀로 그 무거운 진실을 취재수첩 속에 가두어 두었다. 그것은 기자의 부채감이자, 한

영남일보

2026-04-29 (수) 002면

서울 병원들 떠넘기던 산모와 아기, 대구가 살렸다

40대 28주차 갑작스러운 진통
수도권 세 곳서 '병원 뱅뱅이'
300km 발길 구급차 긴급 이송
전문의료진 수술로 위기 넘겨
80일만에 기적처럼 건강 찾아

지난 1월 29일 저녁, 서울 송파구에 사는 40대 산모 A씨는 역경이 무너졌다. 임신 28주 차, 갑작스러운 진통에 휩싸인 고위험 산모(이란성 쌍둥이)를 받아주겠다는 수도권 병원엔 단 한 곳도 없었다. 질속 같은 어둠 속, 생사가 오가는 300km를 내달려 도착한 곳은 연고가 전혀 없는 대구였다. 대한민국 의료 인프라의 최정점인 서울에서 밀라난 1.2kg의 작은 생명을 역설적이게도 지방 한 대학병원의 품에 안겨 80일 만에 기적처럼 건강을 되찾았다.

◆수도권 병원의 떠넘기기

A씨는 그간 서울 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그러다 자궁경부 길이가 짧아져 조산 위험이 있다는 소견에 이른바 '빅5' 병원 중 한 곳으로 이동해 진통 억제제를 맞았다. 하지만 이 병원은 돌던 타 대학병원으로의 전원을 이유에서였다. 부라부라 구급차를 타고 세 번째 병원으로 향했지만, 그곳 역시 표측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시간만 속절없이 흘러갔다.

밤 9시가 되자 양수가 터지는 위급 상황이 발생했다. 병원 측은 "지금 당



28일 대구가톨릭대병원 이소희 교수(소아청소년과)가 취재진에게 지난 1월말 서울에서 전원한 산모의 응급 제왕절개분만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이윤호기자 yoonho1@yeonnam.com

장 출산을 진행할 수 없다"며 다른 병원을 수소문하기 시작했다. 이후 돌아온 대답은 "대구로 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동 중 태아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경고까지 더해졌다.

A씨 남편은 당시, 참담함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응급실 뱅뱅이가 아니라 입원 중이던 환자를 떠넘기는 '병원 뱅뱅이'를 당했다"며 "이송 도중 처치를 못 받아 아이가 죽을 수도 있다면 서 밖으로 내모는 시스템을 이해할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결국 부부는 선

택의 여지 없이 대구행 구급차에 몸을 실었다.

다음 날 오전 2시45분, 산모가 대구가톨릭대병원 응급실에 힘겹게 도착했다. 이미 분만이 상당히 진행된 급박한 상태였다.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의료진은 즉각 응급 분만장으로 뛰어가 제왕절개 수술에 돌입했다.

하지만 운명은 가혹했다. 쌍둥이 중 한 명이 끝내 세상을 떠난 것. 생존한 아이 앞에도 슬한 고비가 있었다. 초

기에는 태변 배출이 안 되고, 수유가 진행되지 않아 조영제 검사를 거쳐야 했다. 갑작스러운 무호흡증과 함께 열증 수치가 치솟아 패혈증이 의심되기도 했다. 패혈증이라는 치명적인 위기도 찾아왔다. 폐어냈던 기도 삽관을 다시 닫고 항생제를 쏟아붓는 등 숨 막히는 사투가 계속됐다.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었던 데에는 병원 측의 세심한 배려도 한몫했다.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들려주는 '경거루 케어'를 통해 아이는 점차 안정을 찾았고, 산모 역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었다. 천주교 재단 병원의 특성상 산부·수녀들이 매일 아침 병동을 돌며 기도한 것도 가족들에게 큰 위안이 됐다.

◆타 병원 교수 초빙 등 지역 병원의 저력

수도권 대형병원들조차 포기한 초고위험 산모를 어떻게 이 대학병원에서 무사히 품어냈을까. 병원측은 ' 풍부한 전문 인력'과 '유기적인 시스템'을 꼽았다.

주치의 이소희 교수(소아청소년과)는 "타 병원 신생아집중치료실은 보통 2-3명의 전문의가 돌아가지만, 저희는 세부 전문의 8명이 상주해 안정적인 대처가 가능하다"고 했다.

특히 '의료진 초빙 시스템'이 눈에 띈다. 이 교수는 "병원 내 해당 분과 전문의가 부족할 경우,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재전원시키는 대신 타 대학병원 교수님을 직접 초빙해 수술을 진행한다"고 했다.

28일, 아이는 미숙아에게 흔한 중증 뇌출혈이나 심장 질환 등 큰 후유증 없이 3.2kg의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했다.

산모는 이날 퇴원 수속을 밟으며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다. 그는 "서울에서 밀려나 연고도 없는 대구로 올 때는 너무 막막하고 두서없이 이곳으로 온 게 천운이었다"며 "매일 전화로 아이 상태를 상세히 알려주고, 진심으로 환자를 대해준 의료진의 체계적인 진료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nam.com

2026년 4월29일자 영남일보 2면에 보도된 고위험 산모·신생아 응급 이송 및 치료 사례 기사. 서울 병원에서 수용이 어려웠던 산모가 대구가톨릭대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받고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을 회복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인간으로서 지키고 싶었던 최소한의 예의였다.

인큐베이터 너머의 사투, 기적의 잠복기

보도되지 않은 침묵 속에서도 나는 대구의 그 병원을 잊을 수 없었다. 아니, 잊어서는 안 된다는 강박이 나를 괴롭혔다. 나는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와 수시로 연락하며 남겨진 생명의 안부를

물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소식들은 매번 아슬아슬한 고비를 넘고 있었다. 신생아 패혈증, 무호흡증, 그리고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폐출혈까지. 매 순간이 벼랑 끝의 행진이었다.

"한 아이를 보냈기에, 남은 아이만큼은 무조건 살려야 한다는 지독한 사명감이 우리를 버티게 합니다." 전문의의 목소리에는 지친 기색보다 서슬 퍼런 결의가 담겨 있었다. 나중이라도 이 이야기를 전하게 된다면

‘다학제적 협진’과 ‘체계적인 중환자 관리’라는 건조한 행정 용어들로 치장하리라 생각했지만, 실제로 내가 목격한 것은 기술을 넘어선 숭고한 집착이었다.

간호사들은 아이의 기저귀 하나를 갈 때도 이름을 다정하게 속삭였다. 의료진들은 매일 아침 아이의 인큐베이터 앞에서 낮은 숨소리로 기적을 빌었다. 그들은 퇴근길에도 인큐베이터 주위를 맴돌며 아이의 가느다란 호흡에 자신의 숨을 보탰다. 그것은 기술의 영역이 아니라,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을 위해 바칠 수 있는 가장 경건한 정성이었다. 나는 그 광경을 목격하며 기사로 다듬어지지 않은 날것의 감동을 수첩에 옮겨 적었다. 그것은 보도를 위한 취재가 아니라, 생명의 경외감을 배워가는 참여의 과정이었다.

80일 만의 대면, 무너진 관찰자의 오만

마침내 4월28일, 아이의 퇴원 날이 왔다. 취재를 시작한 지 80일 만에 나는 비로소 산모와 남편, 그리고 의료진을 한자리에서 마주했다. 인큐베이터 안의 수치와 차트 속의 기록으로만 접했던 생명이, 비로소 인간의 온기를 지닌 채 내 눈앞에 나타났다.

1.2kg의 가냘픈 떨림이었던 아이는 어



영남일보 강승규 기자(사회2팀장)

느릿 3.2kg의 묵직한 존재가 되어 부모의 품에 안겨 있었다. 산모는 나를 보자마자 내 손을 꼭 잡았다. 80일간의 고난이 깊게 팬 그녀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기자님, 수도권에서 밀려날 땐 세상이 우리를 버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연고도 없는 대구에서 우리 아이를 살려주셨고, 기자님이 끝까지 관심을 가져주셔서 우리가 외롭지 않았네요.”

그 순간,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나는 그저 사회적 공분을 일으킬 ‘날카로운 기사’를 쓰기 위해 그들을 집요하

게 추적했을 뿐인데, 그녀는 나의 ‘관심’을 ‘생명의 끈’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전문의의 충혈된 눈과 부모의 눈물이 교차하는 장면을 보며,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기사는 예리한 문장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사투 곁을 묵묵히 지키는 발과 가슴으로 쓰는 것임을. 내가 보도하지 않았던 그 한 명의 죽음은, 역설적으로 남겨진 이 아이를 반드시 살려내야 한다는 이 현장 모든 사람의 절박한 약속이었음을 말이다.

3.2kg이 가르쳐준 기자의 본분

내 품에도 느껴질 만큼 든든한 무게를 지닌 아이를 바라보며, 나는 내 취재 인생에서 가장 무겁고 값진 마침표를 찍었다. 3.2kg. 그것은 단순한 몸무게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포기하지 않았던 양심의 무게이자 필수요리를 지켜낸 이들의 헌신이 빚어낸 성적표였다.

‘2026 기자의 세상보기’에 이 글을 보내며 나는 스스로에게 묻는다. “기자라는 명함 뒤에 숨어 사람의 온기를 잊지는 않았는가.” 나는 300km를 달려온 그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를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그 소리는 시스템의 붕괴를 알리는 비명이기도 했지만, 생명을 향한 마지막 희망의 외침이기도 했다.

이 글은 특종의 냄새를 쫓던 한 기자의 통렬한 성찰이자, 절망의 끝에서 기적을 일궈낸 지역 거점 병원의 이름 없는 영웅들에 대한 헌사다. 300km의 길 위에서 버려졌던 생명이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오기까지, 그 긴 시간 동안 내가 배운 것은 차가운 ‘비판’보다 뜨거운 ‘연대’의 힘이 었다. 이 기록이 오늘도 진실의 사막을 걷는 동료 기자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사선을 지키는 의료진에게는 가장 낮은 곳에서 전하는 격려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보도되지 못한 채 수첩 속에 잠들어 있던 그 80일의 기록이, 이제야 비로소 생명의 무게로 세상에 나오길 바란다. 🙏

영남일보 강승규 기자